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28. 어린양이 인을 떼심

2013. 07. 14.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시록 5장 공부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은 6장에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6:1~4]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3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1. 이제 어린양께서 일곱 인 중에 첫째 인을 떼시는 장면에 왔습니다. 여기 봉한 인이 무엇입니까?

답: 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7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치는 그런 인은 아닐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은 그 두루마리를 아무나 열지 못하도록 친 인이니까, 그것을 누가 인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두루마리에 인을 쳤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인이겠지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일 가능성이 있지요. 인은 일반적으로 그 도장 임자의 이름이니까요. 그러니까 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6장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살피고 알아가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2. 예,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인에 무슨 복음적 의미가 있는가 하여 여쭈어본 것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대로 계시해 주지 않았으면 모르지요. 그러면 인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답: 예, 목사님, 그런데 인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그게 무엇입니까?) 이미 계시록 서론을 이야기할 때 한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계시록을 미래주의적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4장 이후의 예언을 역사적 종말사건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인에 대한 계시도 일곱 교회와 같이 요한이 계시를 보던 그 역사적 시점에서 종말까지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을 계시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다음에 있을 일곱 나팔도 동일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예언은 사각형 기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네 면이 있잖아요. 그것을 1면 2면 3면 4면이라고 번호를 붙이고, 일곱 교회는 역사적 사건을 교회를 중심으로 계시

해주신 것이지요. 물론 요한이 계시를 보던 당시를 기점으로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를 중심한 역사적 사건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2면은 일곱 인인데, 그것은 1면과 동일한 시기에 시작해서 역사적 사건을 계시해주시는데 이것은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일하며 그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3면은 일곱 나팔인데, 그것은 일곱 인과 반대로 세상이 교회에게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역시 동일한 시작 시기에서 출발하여 진행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4면의 사건인데 그것은 세상에서 1,2,3면의 사건이 생긴 근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하늘에 있는 전쟁부터 보여주시지요. 이렇게 사각 기둥 같이 1,2,3,4면의 사건들을 역사적 사건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의 첫째 인은 일곱 교회의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시대에 있는 사건인데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사각 기둥으로 비유하니까 이해가 빨리 됩니다. 각 계시들이 출발점을 같이 하면서 각각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일어나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이네요.(저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일곱 인은 교회가 세상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가하는 것이고, 일곱 나팔은 세상이 교회에게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근원적 사건을 처음부터 계시하셨다는 말씀입니다.(예, 잘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인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답: 그렇게 합시다. 이미 봉독했지만 다시 한 번 성경을 읽고 이야기 합시다.

[계6:1,2]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2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어린양이 첫째 인을 떼십니다. 그때에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 소리 같은 소리로 말합니다. 오라, 요한이 그 소리를 듣고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기수가 타고 있지요. 그 사람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모습은 흰 말과 기수는 싸우러 가는 장면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흰 말이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말은 전쟁에 대하여 말할 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러가는 장면이 옳지요. 계시록 19:11에 예수께서 흰 말을 타고 싸우시는 전사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이기는 전사의 모습은 바로 이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요. 그래서 말을 타고 행하는 일곱 인의 계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앞장서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려는 것을 상징하는 계시로 이해됩니다. 다섯째 인부터는 좀 다른 양상입니다만. 어쨌든 세상이 만만찮지요. 첫째 인은 에베소 교회 시대와 거의 동시대인데, 그 행사도 비슷합니다. 에베소 교회 시대에 사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또 정복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에베소 교회를 말할 때에 인용했지만, 골1:23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했습니다. 첫째 인은 이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고 복음의 전파

가 세상과의 투쟁, 곧 생명과 사망간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 타고 싸우는 표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4. 인을 표상된 사건은 교회로 표상한 것보다는 상태를 단순하게 계시해주신 것 같군요. 첫째 인을 뗀 사건이 그냥 초대 교회의 복음 전파가 강력해서 세상이 그냥 받아들이는 쪽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서 교회의 일방적인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둘째 인을 뗄 때는 말이 붉은 색입니다. 적토마입니까?

답: 첫째 인을 뗄 때의 상황은 일방적인 승리를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시작이 힘 있게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으로 시작하여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둘째 인을 뗄 때부터는 양상이 아주 달라지는 것을 말의 색깔로 보여줍니다. 붉은 색은 핏빛이지요. 읽어봅시다.

[계6:3,4]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4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은 교회와 세상이 피를 흘리는 싸움을 한다는 것을 표상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니까 세상이 분노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피를 흘려 교회를 피로 물들인 사실을 나타내는 표상입니다. 말을 탄 기수가 교회인지, 로마제국을 뜻하는지는 분분한 의견이 있지만 핍박당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건에 대한 표상이라고 하는 데는 역사주의 해석자들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수는 큰칼을 받았습니다.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복음의 말씀을 종횡무진으로 휘두르니까 세상이 반격합니다. 대쟁투가 극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화평이 없어집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10:34~36]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 화평이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그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복음과 싸우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세상 정신으로 생활하는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받은 가족과 거절하는 가족이 원수가 됩니다. 가족은 원수가 아닌데, 그 사람들 속에 역사는 영이 원수이기 때문에 가족끼리도 원수가 됩니다. 붉은 말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 나아가는 곳에 세상은 또 핍박의 칼로 정항해서 피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 시대의 역사입니다. 100년경부터 313년경까지이지요.

5. 정말 적절한 표상을 그 시대를 나타내었군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실을 미리미리 가르쳐주셔서 대책을 세우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런대 직설적으로 가르쳐주시면 왜 안 되지요?

답: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의 세력, 곧 어두움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공격하고 훼방하는 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전략서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알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깨닫기 못하도록 해 두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시지요.

[마13:13]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그대로 생활하려는 성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령께서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과 표상으로 가르쳐주셨고, 또 상징과 표상은 단순한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내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6. 말씀을 들으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셋째 인을 떼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셋째 인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지요.

[계6:5,6]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셋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난 것은 검은 말입니다. 기수는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검은 색은 흑암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합당한 색이지요. 이것은 이 시대의 교회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교회 자체가 사단의 수중에 떨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핍박으로 인한 유혈시대를 지나면서 흑암의 세력인 사단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버가모 교회와 같은 시기인데요,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에 있었잖습니까. 손에 저울을 가진 것은 6절을 읽으면 기근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것 같은 음성이 하는 말이 기근을 나타냅니다. 여기 말한 이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자들이 곡식 값에 대하여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가리키는 상징입니다. 소문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소문을 낸 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소문은 대체적으로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식량 값이 비싸다는 소문은 좋은 소식이 아니지요. 여기 말한 이 값은 엄청 비싼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라고 했는데, “한 데나리온”은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마20:2). 또한 “되”는 “코이니케스”인데 건강한 남자의 하루 식량을 나타내는 고대 단위였습니다. 이런 가격은 당시의 보통 시세의 12배 또는 최고 16배가 되는 가격이라고 키케로의 글에 있습니다.(Cicero, Against Verres iii. 81) 이것은 당시 진리를 구하기가 어렵게 된 것을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진리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세속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세상에 높임을 받으니 진정한 교회와 진리는 숨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감람유와 포도주는 보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지요. 사사기 9장입니다.

[삿9:8,9,12,13]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감람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 때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들의 후예들이 훗날 개혁자들로 진리의 수호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는 313년에서 538년간의 시기이지요. 셋째 검은 말 시대가 이 시대에 세상에서 당한 교회의 경험을 나타냅니다.

7. 상징이 절묘합니다. 버가모 교회 시대와 아주 잘 맞는 내용입니다. 이제 넷째 말인데, 말을 탄 기록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이야기 합니다.

[계6:7,8]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

넷째 말은 색깔이 좀 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 색깔입니다. 청황색입니다. 이것은 순우리말로 풀이하면 누르스름하면서도 녹색을 띠고 있는 창백하고 공포스러운 색깔입니다. 검은 말 뒤에 나온 말인데, 사망의 두려움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검은 말이 사망의 세력의 등장을 뜻한다면 넷째 말은 사망이 지배하는 것을 표상합니다. 그러니까 기수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여기 사망이라는 말 “다나토스”는 70인 역 헬라어 성경에서 히브리어 “데베르”를 번역한 말인데, 데베르는 온역입니다. 역병, 곧 치료 불가능한 전염병을 뜻합니다. 헬라어 다나토스는 사망이라는 말인데, 요한은 70인 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기 때문에 역병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넷째 말은 사망과 음부가 주장하게 된 교회를 표상하니까요. 이것은 진리가 숨고 진리의 기근이 극심하고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니까 진리와 복음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여 사망과 음부가 주장하도록 만든 시대의 교회 상황을 잘 표상합니다. 그들의 교훈을 받으면 사망하고 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계시입니다. 생명의 길을 제시해야 할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이 사람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결과적으로 음부에 떨어지게 하니까 창백한 청황색으로 표상된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교권로마 시대를 잘 나타냅니다. 이것은 538년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1517년까지의 시대의 교회의 상태, 교회라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상에게 삼킨

시대를 잘 표상하고 있습니다.
8. 그런데 이 말과 기수가 땅 사분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써 죽이더라고 했습니다. 땅 사분의 일의 권세가 무엇인가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1) 처음의 세 인에서 사분의 삼은 멸망하고 남은 사분의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2) 땅 전체의 사분의 일로 부분적인 멸망이라고 해석합니다. (3) 땅 위의 전면적인 환난이 일어나되 그 가운데서 사분의 일이라고 해석한다. (4) 땅의 넓은 지역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의 설명이 옳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앞에 세 가지는 다 미래주의적 해석법을 따르는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넷째 것은 역사주의적 견해인 것 같습니다. “권세를 얻어”가 누구에게 권세를 얻었는지 말하지 않고 그냥 권세를 얻었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나님께 얻었다고 생각해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땅의 사분의 일을 통제하는 막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권세 행사에 억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얻은 권세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작은 뿔이 형통할 것이지만 자기 권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봅시다.

[단8: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단11:37~39]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38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다니엘서의 이 예언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시대와 청황색 말의 시대에 사건을 예언한 것인데 내용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세를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에게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 중에서 유럽에서 이 일이 자행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육대주라고 하지만 요한이 계시를 통하여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말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는데, 세상이 만만하지 않지요. 세상은 교묘한 반격으로 오히려 교회를 삼켰고, 교회는 지하로 숨어서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섯째 인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감람유와 포도주로 표상된 편에 굳게 서서 진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끝까지 이어가야 하겠지요.

9.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길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세히 복음의 역사적 진행에 대하여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언의 지도를 받아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으로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